

● ●

인터뷰

# 2011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

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

(사)한국포장기술사회(회장 김기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11년 정기 기술사시험 93회 결과, 총4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고 전했다.

올해 탄생한 포장기술사는 ▲ 권성희 / 삼성전기(주) 품질경영팀 과장 ▲ 김경원 / LG생활건강 포장연구부문 선임연구원 ▲ 박상희 / 패키징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이진경 / (주)아팩 이사이다.

포장기술사는 국내 패키징분야 최고 기술 전문가로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포장의 기술적 발전과 적합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국내 포장문화 진흥에 주력, 발전하고 있다.

2011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들의 수상 소감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포장의 역할 및 중요성 지속적 교육 필요**



권성희

삼성전기(주) 품질경영팀 과장

연게 된 것.

2011년도 포장기술사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권성희  
삼성전기(주) 품질경영팀 과  
장은 포장기술사 합격에 대  
한 소감이 남다르다.

2009년 1차 필기합격 후  
2년 만에 최종 합격 소식을  
연게 된 것.

그녀는 “포장”을 알게 되어 ‘포장인’이 된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993년 동국전문대(現 경북과학대) 포장학과에 1  
회 신입생으로 입학하면서 ‘포장’과의 인연을 맺게  
된 권성희 과장은 학교 재학 중 포장관리사를 이수  
했고 졸업 후 포장기사를 취득, 이후 16년만에 포장  
기술사에 응시, 합격하게 됐다.

권 과장은 1995년부터 삼성전기(주) 포장개발  
팀에 입사, 12년 동안 품질그룹내 포장개발파트에  
서 개발 업무를 진행했으며 그 후 2년동안 품질시  
스템과 표준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는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장개발’에서 벗어나  
생산과 판매, 물류 등 회사 전체의 시스템을 파악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최종적으로 ‘포장기술사’  
를 꿈꾼만큼 평생의 꿈을 이룬 것과 다름없다고 전  
하는 권성희 과장은 ‘포장편람’을 기본으로 공부했  
으며 분야별 관련서적을 참고로 포장기술사 시험을  
준비했다.

포장기술사 시험의 경우, 타 기술사 자격시험에  
비해 매년 응시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녀는 “포장기술사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수험생간 정보 교류도 가능하고, 분야별

이해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아쉬  
움을 전하면서 “포장에 대한 학문의 인식이 더욱 자  
리매김되고 포장기술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응  
시자가 많아져, 앞으로 1회/년이 아닌 2회/년으로  
시험제도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장기술사’로 발돋움한 권성희 과장은 앞으로  
포장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Packaging mind에 있  
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성희 과장의 포장기술사 합격은, 삼성전기 내  
에서도 첫 포장기술사의 탄생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삼성전기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포장  
업무를 중요 업무로 인식,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번  
에 기술사가 처음 나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 내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기술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권 과장은 비포장인들에게도 포장의 역  
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시기  
라는 생각으로 포장관련 이론 교육의 기회를 접하지  
못하는 후배들에게 짧은 지식이지만 먼저 공부하면  
서 접했던 부분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우선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권성희 과장은 포장업계가 ‘Packaging’이란  
하나의 틀 아래에서 같은 동질감으로 한 목소리  
를 내 궁극적으로 업계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하  
고 있다.

오랜시간 꿈꾸던 ‘포장기술사’였던 만큼, 합격  
소식 이후 기분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그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 나  
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권성희 포장기술사의 행보  
를 기대해 본다.

## 국제무대에서 한국 포장의 우수성 알리고 싶어



김경원

LG생활건강  
포장연구부문 선임연구원

“부족하지만 나름의 노력 끝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포장 기술사의 일원이 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만 실력보다는 운이 좀 더 따라준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부족한 전문 소양을 동료들이나 선배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부단히 경주해야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 봅니다.”

2011년도 포장기술사 시험에 응시, 합격한 김경원 씨는 현재 엘지생활건강에서 화장품 포장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대학원에서 고분자공학을 전공한 후 1999년 엘지화학 생활용품 사업부에 입사, 주방/주거/세탁제품 포장개발 담당을 시작으로 현재는 화장품 포장 및 용기의 신제품 포장 개발, 포장 외관 및 기능 차별화, 원가절감 및 지속가능패키징 개발, 포장 표준화 및 공용화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혁신 도구인 Six Sigma 활동의 효과적인 사내 전파를 위해 Black Belt 자격을 인증 받았고 신규 개발된 플라스틱 소재의 선제 적용, 사내 운용 골판지 박스의 재질 최적화, 물류 효율 극대화 포장 시스템 개발 등의 프로젝트성 업무 등에 십 여년간 종사해 왔다.

“포장 관련 업무를 이론적인 무장 없이 경험이나 관행에 의해 수행하다 보니 혁신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정 중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불가피 했다”는 김경원 선임연구원. 그는 무엇보다

도 특히, 신입사원 OJT 교육 시 주로 과거의 실패 사례 등 경험에 의존한 교육에 한계를 느꼈고, 그간의 업무 경험을 이론적인 뒷받침을 통해 재정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기술사 시험 준비 과정을 통해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갈증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확신이 들었고, 또 오랜 동안 지식 충전에 소홀한 채 한정된 지식의 소진에만 열을 올렸던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준비를 작성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포장기술사 준비 과정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는 김 선임연구원. 그러나 그는 “그동안 많이 접할 수 없었던 식품이나 완충, 위험물 포장 등의 다양한 분야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의미 있던 시간이었고,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경원 선임연구원은 향후 외국어 실력을 연마하여 ISO 같은 국제 표준 관련 기구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안 수립 등의 업무에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해외 포장 관련 협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 포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환경 관련 문제나 빈곤 퇴치 등의 글로벌 이슈에 포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접목시킬 수 있는 일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패키징’, ‘포장’이라는 것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막대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그에 인식이 미미한 것이 현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포장분야 종사자들간의 각 업종내 위상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선 포장이라는 횡적 카테고리 내에서의 동업자 의식과 주인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포장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나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의 활성화로 포장인들간의 유대감 및 동질감을 높여나가는 한편, 이를 통해 각자 현업 복귀 시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촉매로 작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경원 선임연구원은 “포장기술사 시험 역시, 무엇보다도 응시자 저변확대가 시급해 보인다”고 피력하면서 시험 시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포장기술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병행되면 포장기술사도 여타 다른 기술사 그룹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며 자기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김경원 선임연구원. 자랑스러운 포장기술사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포장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하는 그의 발전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패키징, 고부가가치 브랜드 산업 발전에 기여**



박상희

패키징기술센터 선임연구원

“포장기술사(Packaging Professional Engineer)라는 자격을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포장기술사 자격에 대한 동기부여와 격려를 해주신 패키징기술센터 동료 분과 지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박상희 씨는 무역업무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게 된 물류포장분야에서 항공 해상화물 수송포장, 물류관리, 각종 전시품

포장, 위험물포장, 물류포장 컨설팅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패키징센터는 패키징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가지정 센터로 패키징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평가를 위한 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정부포상(KOREA STAR AWARD S), R&D, 정책연구, 국제교류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녀는 선임연구원으로서 패키징 기업의 기술지원 및 패키징 엔지니어링 디자인 시제품제작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지식경제부 주최로 진행되는 패키징 정부포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패키징기술센터에서 기업지원을 주 업무로 진행하다 보니, 전공분야 이외에 여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많이 필요했다”는 박상희 선임연구원은 패키징이 응용산업이다 보니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실무와 이론이 접목되어야 하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패키징 분야의 이론 정립을 위해 포장 기술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패키징은 과학과 공학, 디자인과 마케팅에서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이르는 무수한 기술과 연구가 융합되어 패키징 하나로 세계와 소통이 가능한 매력적인 산업이라고 강조하는 박상희 선임연구원.

이번 포장기술사 합격을 계기로 그녀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패키징 관련 기업의 전문적 기술지원으로 패키징이 단순 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브랜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그녀는 패키징기업의 기술지원에 주력하며 국내 패키징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 식품포장 수성화 작업 및 안전성 확보 연구



이진경

(주)아팩 기술연구소 이사

2011년도 포장기술사 시험에 합격한 이진영 (주)아팩 이사는 “그동안 알고 있는 포장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등을 재정비하고 정리하면서, 기술사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포장기술사’라는 자격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쁜만큼 여러 선배님들의 그간 노고에 일조할 수 있는 포장기술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동안 (주)농심, (주)대원포리머, (주)랩프런티어를 거쳐 (주)아팩 기술연구소에서 친환경 접착·코팅제, 드라이 라미용 친환경 수성 비클과 접착제 생산, 기술개발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포장과 산업의 수성화에 관심을 갖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녀는 이미 식품기술사로서 (주)고가네식품 김치가공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그녀는 “포장기술사는 포장산업 전반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로서 Professional engineer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또는 다른 산업에서 자신의 지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기술사와 포장기술사, 두가지 자격을 갖추게 된 이진경 이사는 앞으로도 식품에 적용되는 Packaging materials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식품포장에 생분해성 고분자의 적용에 관한 연구, 친환경 연포장 접착제의 개발 등 식품포장의 연구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며, 포장협회와 포장기술사회 그 외 유관기관과 함께 포장관련 개발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패키징은 적은비용으로 최대의 기능효과를 내야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강조하는 그녀는 ‘포장’은 제품의 얼굴이자, 상품을 알리고 가치를 주기 위해 여러 기술융합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설계하는 만큼 “첨단기술의 복합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이사는 식품포장의 경우 안전하게 유통기한(shelf life)을 유지해야 하는 보존기능이 있는 만큼, 그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처리 해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소요되는 포장비용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한다.

“보다 적은 플라스틱의 사용과, 적은 색도와 낮은 색감의 수성인쇄, 과도하지 않은 포장 등 좀 더 과학적, 경제적, 합리적, 친환경적인 패키징을 위한 노력이 포장산업 전반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포장 수성화도 그리비아 잉크의 수성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제조사, 그리고 협력사 모두 한마음으로 포장과 플라스틱이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닌 순환하고, 재이용,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녹색환경입장에서 개발과 디자인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진경 이사는 식품 연포장의 드라이 라미네이션용 수성 접착제의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레토르트(retort) 분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적인 포장산업적용의 활성화를 위한 실험과 마케팅으로써, 식품포장의 수성화 작업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일익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외에도 식품포장의 안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부분에도 주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능동적 기술사, 그리고 후학을 생각하는 현명한 기술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녀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K]